

전남교육청, 2022년 지역경제활성화자문단 협의회 개최

소상공인·전남교육 상생발전 위한 협력방안 모색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와 자문단 위원 35명 참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과 지역경제활성화 자문단이 14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전남교육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와 자문단 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전남교육청이 추진한 지

역경제 활성화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발전방향 등을 협의했다.

자문단은 이날 전남교육청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발급해 큰 반향을 일으킨 '전남교육 지역상생카드'의 결제방식 개선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전남업체 구매율, 전남교육 지역상생카드 도입 등 지난해 추진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자문단과 공유하고 2022년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윤풍식 자문단장은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업체 구매비율도 높아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이 마련됐다."며 전남교육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올해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학교도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전 기관과 교員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오늘 이 협의회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꽃피우게 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함평교육청, 지역아동센터장 협의회 운영

이용 학생의 40%가 넘는 학생이 다문화 가정 학생

함평교육지원청은 15일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함평군 지역아동센터장 협의회를 갖았다.

이번 협의회는 함평군이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전남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가운데,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의 40%가 넘는 학생이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이에 각 지역아동센터별 현황과 어려운 점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계획되었다.

범미경 교육장은 "우리 지역의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10%가 넘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아이들을 여러 측면으로 보살피 주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 학생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2의 사회

적 지지자인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에 그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함평교육지원청은 학교별 교육공동체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기초 문해력, 생활지도 등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은 함평군가족센터와 연계하여 공부방 환경 조성 및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함평=김광춘기자

구례교육청, '여덟 번의 봄'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식

'노란 바람개비' 교육청 작은 화단에 설치

구례교육지원청은 16일 구례교육지원청 야외에서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식 행사를 치렀다.

이 날 추모식은 추모 묵념과 함께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직원들이 노란 바람개비를 교육지원청 작은 화단에 설치하였다.

햇볕이 따뜻한 오전에 아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 모인 직원들은 바람개비를 하나씩 꽂으며 304위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노란 리본이나 바람개비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한 직원은 "그

때의 아이들이 지금은 26살이 되었는데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또 다른 직원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잃는 슬픔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일이다. 그 부모님들도 부디 잘 지내기를 기도한다" 하며 소회를 피력했다.

김영훈 교육장은 "마음이 아린 오늘을 기억하며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에 힘쓰고 있는 교직원들과



구례=박진호기자

순천교육청, 중국어를 통한 미래사회 핵심역량 강화

초·중학생·학부모·교사·대학교수 등 100여명 참석

학부모, 교사, 대학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통통 중국어교육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통통 중국어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장 추천을 통한 순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심사를 거쳐 초등학생 47명, 중학교 19명 총66명을 선발하였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알맞은 의사소통 중심의 중국어교육을 4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운영될 예정이다.

이용덕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미래 사회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의 하나는 중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며, 이번 통통 중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순천의 인재로 성장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중국어교육 선도청으로 대학, 지자체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초·중학생의 중국어 실력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추었던 여름방학 중 중국문화 체험 캠프도 운영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국립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합동강의실에서 초·중학생,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